

세션 2: 해안공동체와 식생활과 문화: 사회문화적 접근

이타우케이 공동체의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성 다시 보기

코라리아 래셀 (피지, 남태평양대학교)

피지의 무형문화유산은 과거에는 지속가능한 생활에 기여했고 현재에도 피지주민들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. 방법은 다르지만 이들의 문화 및 사회적 관행이 환경의 지속가능성, 포용적 사회 개발, 경제 개발, 평화와 안보를 향한다는 것에서 보이듯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피지 해안공동체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. 피지 해안공동체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필요와 바누아 (vanua)¹ 전체의 필요를 해결하고 공동체 각 구성원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익숙하다. 이것은 자연과 공동체, 경제와 사회의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보장한다. 지속가능성은 피지인들의 사우투(sautu)²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다. 피지인들의 맥락에서 사우투는 평화, 웰빙, 번영 및 풍요로운 어장을 의미할 수 있다.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행이 피지 해안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보장한다.

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식량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피지 해안공동체의 접근법은 사우투(지속 가능성)를 달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. 그러나 외부의 변화 압력에 의해 과거에 피지인의 삶을 지탱해 온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관행의 대부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, 점점 더 글로벌화 되는 세계에서 신자유주적 사고방식에 의해 주도되는 현대의 변화 이데올로기는 '우리'에 뿌리를 둔 피지인들의 가치와 신념을 '나'로(공동체에서 개인으로) 이동시켰다. 다시 말해, 자급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피지 해안공동체의 식량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. 전지구적 상호연결이라는 변화로 인해 생태적, 경제적, 환경적, 사회적 도전과제들이 야기된 지금, 이제는 식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통적인 접근법을 되살리고 유지하기 위해 피지 해안공동체와 그 안의 각 개인들이 식량 생산, 안보, 소비에 대한 자신의 문화 유산을 살펴볼 때이다.

이 점을 염두에 두고, 피지 해안공동체의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피지 무형문화유산 중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. 구체적으로, 다양한 음식 준비와 보존 방법에 더해 아래의 무형문화유산 요소들이 소개될 것이다.

1. 솔레솔레바키

¹ 피지인과 그들의 땅, 어장, 정신, 역사, 전통, 문화, 인식론으로 구성됨

² 각 개인과 그들의 자연환경 사이에서 평화와 번영이 있는 웰빙의 상태

2. 타부 니 콜리콜리

3. 콜리 베이어나누미

4. 불라바카비티

이 발표의 내용은 2019년 박사논문을 위한 현장연구와 3년간(2016-2018) 제작한 피지공동체의 문화지도를 기반으로 한다.